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블로그

경제의 눈

문화칼럼

신도시 정책,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이상영

〈부동산 114 대표이사〉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라 11월15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본 정책이 발표됐다.

가까운 일본의 예로 보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뉴타운이라는 신도시건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 신도시의 실패

따라서 일본보다도 빠르게 인구와 가구원수가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기에 비슷한 결과 예견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신도시 위주의 건설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고 그 속도는 더 빠르기 때문에 향후 20년 내에 신도시의 활력이 쇠퇴함과 동시에 신도시에 남은 고령자층의 생활은 고통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이 갖는 문제점도 있지만, 기존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 역시 높은 지가와 건축비로 인해 고분양가의 주택에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압축도시라는 것은 도시 중심부에 초고층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시개발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 공급돼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택만을 공급하는 신도시가 아니라 자족적 성격을 갖는 신도시나 도심개발이 되어야 한다.

감양이 주는 가치는 감양지역의 고급주택이나 좋은 학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감양지역이 창출하는 고용에 기반한 지역 내 고성장이나 배정으로 작동하고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신호탄인가

정부가 5일 LG전자,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최고 인바른 수도권 신도시 건설 발표와 부동산 급등으로 지방경제가 가파른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10여년 간 유지돼온 수도권 규제마저 풀린다면 지방 고사는 볼 보듯 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기업의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통계청의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보면 전국 320만8천827개 사업체 중 수도권 사업체가 46.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부 기득권층을 제외한 서민과 지방의 설 자리만 빼앗는다. 인구 감소로 고통을 겪는 지방의 침체는 가속화돼 공동화와 빈곤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사람과 돈이 모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건설의 첫 삽도 뜨기 전에 수도권에 사람과 돈이 몰리게 되는 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성금 익명 기탁 '나눔의 정신' 아름답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간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연말은 더욱 고달픈 수밖에 없다.

시인 안도현은 일찍이 '연탄재를 함부로 밟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일갈했다.

하지만 7일 전남대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두 여성이 메모지에 담긴 글도 인상적이다. '모두가 함께 보는 꽃밭에 물을 주는 마음으로, 모두가 걸어가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한 뒤 '당신들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생활이 어려울수록 세태가 각박해지기 쉽다. 불행이 겹쳐지면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무성한 현실에서 이웃을 돕는 익명의 독자들께는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등불이 아닐 수 없다.

흔히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두 여성의 선행을 거울삼아 주변의 이웃을 되돌아보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싶다.

의료 칼럼



한병선

연말 술자리 약속이 빽빽하게 적힌 달력을 보고 질로 한숨이 나오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지쳐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절대 과음이나 음주자제를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도 대개는 수일·수 주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음주를 해 체면을 무너뜨린다.

나가지 않거나, 식사 후 이어지는 소위 '2차'라는 음주문화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다.

모임장소에는 입구 쪽이나 구석자리를 선택한다. 이는 술을 권유받을 기회 가 줄어들거나 강한 유혹이 있을 때 빨리 자리를 뜰 수 있다.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만 마시겠습니다

형했지만 많은 경우 모임이나 회식자리에서 음주거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음주충동이라는 술귀신(?)에 홀리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술 문제로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음주권유를 거절하는 방법을 훈련하도록 한다.

먼저 자신의 음주와 연관된 문제를 정직하게 재평가해보면서 자신이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상기하고 다시 한 번 확고한 결심과 신념을 갖는다.

가죽들과 또는 혼자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할 수도 있다. "개인 사정 상 술을 끊기로 했으니 도와주세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그만 마시겠습니다" "니가 알다시피 난 술로 고생을 많이 했다" 등 거절 문구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좋겠다.

술문 결과에 나타났듯이 대부분 학생들을 이해하고 포용력 있는 교사를 선호하는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체근이 심한 교사들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사랑병원 원장〉

기고



한병선

사회화과 조사방법론에 오픈 설문 방법이 있다. 응답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개방적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얼마 전 교사들에 대한 선호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약 300여명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오픈 설문을 받아 보았다.

첫째,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었다. 응답은 '자상한 교사', '편안한 교사', '학생을 배려하는 교사',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사'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에서는 '쉽고 재미있게'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과 수준을 맞추는 눈높이 수업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때 따라 교사들도 지금의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교사를 원하는지를 새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바라는 교사상

둘째,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의 스타일에 대한 물음이었다. '체벌하는 교사', '화를 잘 내는 교사', '단체기압을 잘 주는 교사', '자기주장만 하는 교사', '자소 한 일을 끝까지 따지는 교사',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의 빈도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진행에 대한 응답으로는 '재미있는 수업', '알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 '편안한 수업',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는 수업' 등이 주를 이루었다.

설문 결과에 나타났듯이 대부분 학생들을 이해하고 포용력 있는 교사를 선호하는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체근이 심한 교사들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평론가〉

되며 소신 있는 교육이 어렵다고 편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일반적으로 가르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과 교육적 호흡을 맞추어 가야 한다.

〈교육평론가〉

교사십계명운동 공동대표〉

퇴직자 우대회사 알고보니 퇴직금 노린 허위 광고

장년퇴직 하신 시아버님이 1년 정도 쉬다가 얼마전 "나 관리직으로 취직했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다음날 아버님은 저녁에 뭔가 한 꾸러미 들고 들어왔다. 무려 145만원이냐 하는 건강보조식품이었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야만 아버님이 취직하셨다는 관리직에 임용이 된다는데 그 관리직이란 참고관리라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가져오신 건강보조식품은 제품 효능이나 성분을 믿을 수 없는 일본과 중국 제품이었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無等鼓

사람들은 '첫눈'에 대해 저마다 의미를 부여한다. 첫눈이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시인 고성혁은 그 '첫눈'에서 이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보았다.

〈"물결처럼 내리는 눈을 본다. / 흰빛은 몸 / 기인 목으로만 남아 눈발 끝에 걸린 가지 // 그대 / 세월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흐르는 거야" (고성혁, '첫눈')〉

지난 2일 광주에 첫눈이 내렸다. 적설량은 0.3cm에 그쳤지만, 느끼는 감정은 각이 달랐을 게다.

하지만 정작 광주에 첫눈이 내린 것

은 11월6일 밤 11시10분경이었다. 지난해보다 27일 빨리, 해발 1,187m의 무등산 천왕봉과 임석·서석대에 2cm가 쌓인 것이다.

기상학적으로 말하면 무등산에 내린 눈은 '관설'(觀雪)이다.

광주의 첫눈은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앞마당에 있는 20여 평 크기의 잔디밭이 기준이다.

다. 적설량은 노정에 공식 2분의 1 이상 눈이 쌓여있을 때부터 기록한다.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든, 첫눈의 상징성이 퇴색될 리는 만무하다.

meonsan@kwangju.co.kr

첫눈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